**여명학교 2월 기도제목** **2016.2.26. 목요일**

**<대한민국과 통일>**

**1,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가 긴장과 대결 모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. 미국-중국-한국-북한 간에 상호 대결로 말미암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🡪 국제사회가 서로 대화와 협력을 이루고 통일을 위한 지혜를 얻도록**

**2, 남북의 긴장 상태는 더욱 고조되어 가고, 한-중 간의 우호적인 관계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. 🡪국가 지도자들에게 현명한 판단력을 주시고, 여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**

**3, 2000년 6.15 남북공동선언에 근거하여 2005년 9월 시작된 개성 공단 사업을 2016년 2월에 갑작스럽게 철수하고 중단하게 되었다.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124개 입주 기업들과 5만5천 근로자들을 보살피고 도와 주시도록**

**4,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, 북한 리스크가 더욱 증가하면서 대한 민국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. 🡪 북한 리스크가 평화국면으로 전환되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감당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**

**<북한과 북한이탈주민>**

**1 복한에서는 한-미 연합 훈련에 대응하여 청와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. 한-미 연합훈련도 수비 위주의 훈련에서 공격적인 훈련으로 전환되는 모양새이다. 이런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하다. 🡪속히 화해와 평화의 모드를 회복할 수 있도록**

**2, 북한이 강경인사들의 전면 부상과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등으로 더욱 고립과 폐쇄 지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 속으로의 개방이 이루어지도록**

**3, 장마당을 통한 실질적인 시장 경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. 북한의 실질적인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, 인민의 인권과 자유가 개선되고 삶의 수준이 향상되도록**

**4, 남북 분단 70년의 이질화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간 대결 국면으로 인해 더욱 위축될 수 있다. 🡪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남한에 행복하게 정착하고, 북한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**

**<학생들>**

**1, 지난 2월16일에 34명 학생의 졸업식을 은혜 중에 잘 갖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. 26명이 진학, 8명이 취업 또는 재수의 길을 선택합니다. 졸업생들의 진로를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도록**

**2, 2016학년도를 시작하며 여명 학생들이 의욕을 가지고 새 학년에 임하고, 개강 캠프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**

**3, 증가하는 비보호 학생들을 위한 드림윙스 프로젝트를 통해 진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 학생들을 위한 더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,**

**4,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부하며, 학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완전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도록**

**5, 3월2일 개학과 더불어 2박3일 개강캠프를 가집니다.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석하고 저녁 영성의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**

**6, 206명의 여명학교 졸업생들이 직장, 학교 등에서 책임 있게 활동하고, 서로 긴밀한 유대감으로 격려하며 성공적인 사회생활,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**

**<학교>**

**1, 2015학년도 겨울방학 MIT 과학캠프, 디딤돌 프로그램, 겨울학기, 검정고시 과정 수업을 ㈜이지스 자산운용의 지원으로 유익하게 잘 마치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.**

**2, 2016학년도를 위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여명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 학생들을 충분히 보내 주시도록**

**3, 영어 기간제 교사 선발이 잘 이루어지도록, 신입교사들이 학교에 행복하게 적응하고 모든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**

**4, 새로 시도하는 IT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에 진전이 있고, 선생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고, 학생들에게 더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**

**5, 국회에 발의 중인 법 개정 작업이 잘 성사되고, 적절한 부지확보와 통일학교 건립의 일에 큰 진전이 있도록, 여명학교가 통일인재를 양성하고, 통일한국의 북한학교 교육의 모델이 되며,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통일준비학교의 비전을 잘 감당하도록,**